

##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28일은 산림기술자들의 숙원이었던 산림기술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2006년 숲가꾸기 사업을 필두로 산림기술자가 법적 지위와 업역이 만들어진 후 15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늦긴 했지만 이제 전국의 산림기술자들이 모여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을 선포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산림기술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묵묵히 산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과 관심에서 점차 멀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고 산림사업의 현장 실행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 오늘부터 산림기술자들은 다시 태어나고자 합니다. 산림기술자의 권리 헌장과 향후 비전을 발표합니다. 전국의 임업인, 산림기술인들 모두가 공유하고 기뻐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1회 “산림기술인의 날”을 개최하는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최근 대외적 여건과 내적으로는 기술업체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산림분야의 탄소흡수원, 산림 자원을 이용한 그린뉴딜사업, 산촌의 쇠퇴와 젊은 기술자들의 양성에서 실제 실행 주체로 산림기술인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업체의 매출감소, 기술자의 권익, 벌채축소, 타 분야의 산림사업 진입 등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임업직불제, 산주의 권리 강화와 산림경영, 미이용바이오매스의 수집과 이용, 탄소거래, 산림복원, 도시림 확대, 수확벌채 논란 등의 시기적으로 기술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코자 “비전” 산림기술이 임업경영의 기반이 되고 산림기술과 연관된 모든 일련의 행위를 묶어 산림기술산업으로 정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시장을 우리가 앞장서 개척 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도급계약에 의한 산림사업은 분명 축소되거나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산주를 만나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

하고 수확, 운송, 가공, 판매의 컨설팅과 지원 업무까지 더 나아가 경영컨설팅, 교육, 재료와 공구의 제작, 안전담당, 공정과 품질관리, 공제, 보험까지 섭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 제시를 위한 실천과제로는

**첫째로 산림기술인의 자긍심과 권익을 위한 제도 도입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산림기술인은 수주, 계약, 심사 등에서 산림사업의 독립된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현장 기술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산림 품셈이 있어도 건설.토목의 규정을 따르고, 계약시 타분야 기술이 우리의 설계를 마구 훼손하여도 산림기술인은 참기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무차별 임업에 대한 부정인식과 산림사업의 간섭은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에 있습니다. 이에 적극 대응하여야 겠습니다. 산에서 무거운 기계톱을 들고 종일 일해도 건설.토목사업의 보통인부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평균 노임단가는 기계/전기/정보통신/건설/환경 보다 왜 10%이상 적게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한 것에 의연히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타분야 기술의 협력과 업체의 규모화가 절실합니다.**

전국에 산림 관련 국가자격증 기술자는 2021년 현재 38,000여명 정도입니다. 업체가 5,000여개가 넘습니다. 업체의 평균 수주액이 겨우 2억 정도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세금내고 업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요? 궁금하기에 앞서 마음이 아픕니다. 교육비 지원없이 교육받아야 합니다. 기계장비와 면세유 지원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은 누가 주는 일만 하는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시장을 우리 스스로가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은 철저히 민간 주도과 연관 산업을 고려하고, 지역발전의 거점 확보와 산촌정주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 임업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사업에서 내부적으로는 산지전용지복구에서 각종 사업의 기본계획에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림과 휴양 등의 산림복합기술 사업은 모든 분야 기술이 합쳐야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도록 업체의 규모화를 통한 종합업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국에도 규모 있는 산림기술업체가 탄생하고 발전하여 세계적인 기술 수출국가가 되도록 모두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기술인들도 자격대여, 이중등록, 품질과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술산업에 중요한 과제는 국가기술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입니다.

산림기술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모든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산림분야 품셈관리, 안전점검관리, 품질관리 등의 지정도 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공제회, 교육인프라구축, 현장기술개발촉진, 기술 관련 협회 발전방안 등이 담겨서 미래 산림기술의 국가 비전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기술업체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내년을 준비하고 올해 일을 마무리 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사업이 봄과 가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안전사고 없이,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장 정규원